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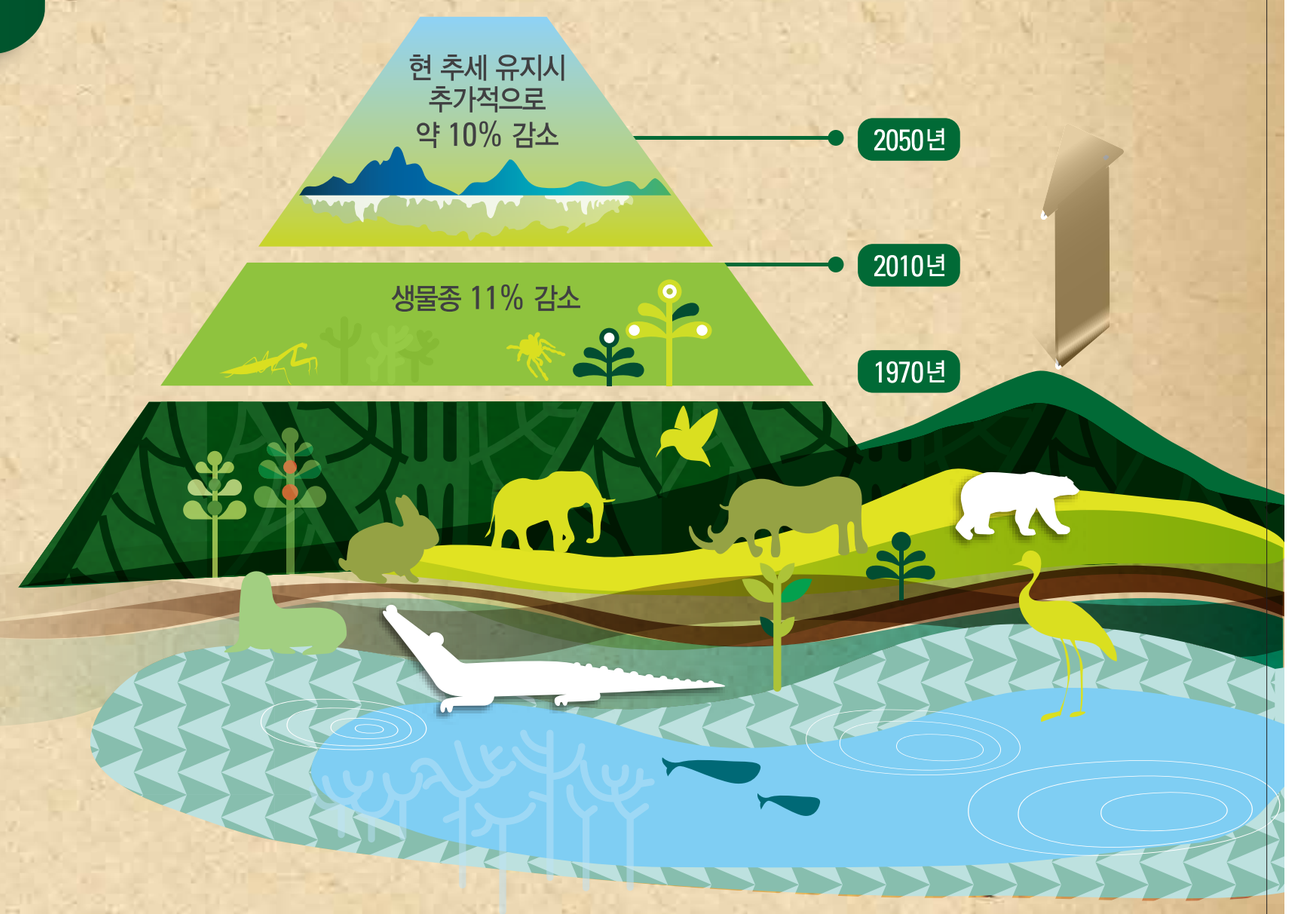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생물다양성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생물다양성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11%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10%가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경제 · 문화 · 복지의 원천인 크나큰 자원을 잃는 것이며, 나아가 생태계의 한 종인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영향은 현재 세대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여 생물다양성과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2014. 9. 29 – 10.17 (3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원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 강원도 GANGWON PROVINCE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대한민국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구적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지구환경 논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매개로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높여 환경복지를 앞당기고 창조경제를 견인하도록 할 것입니다.